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28호
2024.11.14.(목)

Ⅰ.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대만·반도체	TSMC, 中 고객사 대상 첨단 반도체 거래 중단
중국·원자재	中, 저고도 경제 등 산업 수요 증가로 게르마늄 가격 상승세
일본·반도체	日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中 특수 끊겨 성장률 하락 전망
중국·반도체	中 반도체 기업 SMIC, '24년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

주간 이슈 포커스

EU·에너지	EU, '23년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8.3% 감소 전망

원자재 뉴스 PLUS

원자재	中 희토류 주요 기업 실적 부진

Ⅱ. 월간 공급망

ESG 금융배출량 관리, 공급망의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

Ⅲ.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Ⅳ. 공급망 소식통

2024 MDB 프로젝트 플라자 (신청 11/21까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KO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대만, 반도체 TSMC, 中 고객사 대상 첨단 반도체 거래 중단

- 1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TSMC는 中 고객사를 대상으로 오는 11.11일부터 **7nm 이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
  - 이와 관련해 美 상무부가 같은 날 TSMC에 **高성능 반도체의 中 공급 중단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
  - 현지 언론은 **中 화웨이의 첨단 AI 반도체에서 TSMC 프로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으며, 이것이 반도체 거래 중단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
  - 업계 관계자는 추후 TSMC가 中 고객사에 반도체를 지속 공급할 경우, 미국이 관여된 승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 언급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첨단 반도체

출처: 파이낸셜 타임스('24.11.09), 한국경제('24.11.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중국, 원자재 中, 저고도 경제 등 산업 수요 증가로 게르마늄 가격 상승세

- 11.9일(현지시간) 中 시장조사기관 WIND에 따르면, '24.11.8일 게르마늄 잉곳 가격은 kg당 18,770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현지 업계는 **저고도 경제·태양광 산업· 위성 등 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게르마늄 수요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
  - 지난 '23.8월 中 정부는 게르마늄을 국가안보에 중요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게르마늄 및 화합물 6종 수출 시 中 상무부의 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바 있음

핵심 키워드	게르마늄	저고도 경제

출처: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24.11.09)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일본, 반도체 日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中 특수 끊겨 성장률 하락 전망

- 1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2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5.4%를 기록한 반면, '24~'29년은 7.8%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라고 보도
  - 中 정부는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14년부터 약 3,400억 위안(약 66조 2,0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日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中 시장 수주 확대**를 추진
  - 미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 장비를 일찍 발주한 **中 반도체 기업이 발주를 보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반도체 장비

출처: 일본 경제 브리핑 38호('24.11.11)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중국, 반도체 中 반도체 기업 SMIC, '24년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

- 1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약 156억 위안(약 3조 원)을 기록
  - 현지 언론은 AI의 발전 및 제품 국산화 등을 통해 **中 반도체 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기업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
  - SMIC의 '24.3분기 매출액* 가운데 86.4%는 **중국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중국 內 전자제품 소비 및 신산업 수요 증가에서 기인

* **'24.3분기 SMIC 매출액 비중:** 중국 86.4%, 미국 10.6%, 유럽·아시아 3%

핵심 키워드	SMIC	파운드리

출처: 증권시보(證券時報)('24.11.07)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EU, 에너지 EU, '23년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8.3% 감소 전망

- 10.31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24년 기후 행동 진행 보고서를 통해 **'23년 EU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는 추정치를 발표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년을 제외하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역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부문 배출량 감소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

부문별 기후 행동 주요 성과

EU 배출권 거래제(EU-ETS) 적용 부문	
개 요	■ '05년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목표)** '30년까지 ETS 부문 탄소 배출량을 '05년 대비 62% 감축 - **(적용)** EU 역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력, 에너지 집약 산업, 항공·해상운송 등
성 과	■ 전력 발전 부문의 주도로 '23년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현황)** '05년 수준 대비 약 47.6% 낮은 수준으로, '30년 목표치 달성까지 순항 전망 - **(수익)** '23년 ETS 경매를 통한 배출권 판매로 436억 유로(약 65조 원) 수익 창출, 동 수익은 기후 행동·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예산 등으로 배정
노력 분담 규정(ESR) 적용 부문	
개 요	■ EU 각 회원국이 **구속력 있는 연도별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토록 하는 규정 - **(목표)** '30년까지 ERS 부문 탄소 배출량을 '05년 대비 40% 감축 - **(적용)** EU 역내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역내 운송(항공 제외), 건물, 농업, 폐기물 등
성 과	■ 건물 부문의 주도로 '23년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현황)** '05년 수준 대비 약 19.2% 낮은 수준으로, '30년 목표치 달성까지 격차 존재
토지이용·토지이용 변경·임업 규정(LULUCF) 적용 부문	
개 요	■ 토지 이용·수목·식물·바이오매스·목재 등의 대기 중 **탄소 흡수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정** - **(목표)** '30년까지 EU 전체 순 흡수량 3.1억 tCO2e 달성 - **(적용)** 높은 탄소 배출원인 농경지·초원·습지 및 조리·산림 벌채 등 토지 이용 변경 포함
성 과	■ '23년 자연 탄소 흡수원이 8.5% 증가하여 '14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 반전 - **(현황)** '30년까지 4,500만~6,000만 톤의 목표치와 격차가 예상되어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핵심 키워드 탄소배출권 노력분담규정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10.31), EU 경제통상 브리핑 73호('24.11.08)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원자재 中, 희토류 주요 기업 실적 부진

- 1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주요 희토류 상장기업 22개사 가운데 17개사의 1~9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보도
  - 현지 언론은 희토류 가격 감소세 지속 및 다운스트림 분야 수요 부진 등이 中 기업의 매출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

출처: 희토재선(稀土在线)('24.11.03),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1주)

비철금속 | **中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동 가격↑, 中 전기차 시장 확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0월	전년비(%)	10.5주	11.1주	전주비(%)
동	8,478	9,173	8.2	9,408	9,410	0.02
니켈	21,474	17,060	△20.6	15,722	15,931	1.3
아연	2,647	2,729	3.1	3,117	3,011	△3.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中 경기부양책 추진 및 거래소 재고량 감소세로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
  - 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감소를 위해 총 10조 위안 규모 지원 결정
- **(니켈)** 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상승 기대로 니켈 가격 상승압력 발생
  - 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社의 10월 신에너지차량(NEV) 판매량은 502,657대로 전년 동월 대비 66.5% 증가

철강 | **中 철광석 수입 확대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0월	전년비(%)	10.5주	11.1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6.26	△21.4	144.75	143.63	△0.8
원료탄	295.71	249.44	△15.6	202.50	204.60	1.0
철광석	119.32	111.40	△6.6	103.30	104.94	1.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주요 생산기업 수출 감소 및 中 철광석 수입 확대로 철광석 가격 상승압력 발생
- **(유연탄)** 계절성 수요둔화에 따른 가격 소폭 하락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1주)

희소금속 | **기온 하락에 따른 中 생산 감소로 탄산리튬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10월	전년비(%)	10.5주	11.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214	△4.1	1,150	1,150	-
탄산리튬	35,697	12,945	△63.7	10,154	10,479	3.2
수산화리튬	37,972	11,922	△68.6	9,594	9,597	-
코발트 (U$/lb)	17.82	16.46	△7.6	15.50	15.5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62,718	△20.5	248,300	247,500	△0.3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5,160	△29.6	60,550	60,550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中 최대 리튬 매장지 칭하이성의 기온 하락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전주 대비 가격 상승세 지속
- **(페로망간)** 시장 약세에도 불구, 中 합금 수요 증가 및 높은 원료 공급가액으로 톤당 1,150달러 가격대 형성
- **(희토류)** 미얀마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희토류 수급 불안에도 불구, 수요 약세 이어지며 가격 하락세 시현

에너지 | **OPEC+ 증산 계획 연기, 허리케인發 공급 차질로 원유 가격↑**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U$/bbl)	10.5주	11.1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82.10	80.72	△1.38	72.10	73.73	1.63
브렌트유	82.17	80.96	△1.21	72.27	75.29	3.02
WTI	77.60	76.79	△0.81	68.39	71.88	3.49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OPEC+ 증산 계획 추가 연기, ▲허리케인發 원유 공급 차질로 유가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美 달러화 가치 상승 및 美 원유 재고 증가 등은 유가 상승 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 11.4일(현지시간) 사우디·러시아·이라크·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은 약 220만 b/d 규모의 자발적 감산 완화 개시 시점을 1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에 합의
  - 美 안전환경집행국(BSEE) 발표에 따르면 11.7일(현지시간) 기준 허리케인 Rafael의 영향으로 美 멕시코만 원유 생산량의 약 22.4%가 생산 중단
  - 11.1일(현지시간) 美 상업 원유 재고는 4억 2,765.8만 배럴로 전주 대비 214.9만 배럴 증가

월간 공급망

ESG 금융배출량 관리, 공급망의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오찬미 시니어컨설턴트

글로벌 금융권의 금융배출량 대응 동향

- 기후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고탄소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배출량 산정이 중요한 과제인 이유다.

- 실제로 금융기관의 직접 배출량(Scope 1, 2)은 미미한 수준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한 간접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DP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금융배출량은 평균적으로 운영 배출량의 750배에 이르며,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북미의 경우 무려 11,000배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CDP Financial Services Disclosure Report 2022 (2023.08).

[표 1] 금융기관의 운영 배출량 대비 금융배출량 비율

지역	운영 배출량 대비 금융배출량 비율(평균)
아시아 태평양 지역 (Asia-Pacific)	270배
유럽 (Europe)	250배
북미 (North America)	11,000배

[자료원] CDP Financial Services Disclosure Report 2022

-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많은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Coalition),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그리고 탄소회계금융연합(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등 중요한 산업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GFANZ 산하의 넷제로 은행 연합(NZBA, Net-Zero Banking Alliance)이 '24.10월 발표한 진행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은행의 97%가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고배출 산업 부문에 대한 초기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중 약 65%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파리협정의 지구 온난화 상승 폭 1.5°C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실질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NZBA 회원 은행들은 '30년까지 과학 기반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대출·투자·자본시장 활동 전반에 걸친 포트폴리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Net-Zero Banking Alliance 2024 Progress Report (2024.10).

[표 2] NZBA 약속 선언문 네 가지 핵심 요소

1. 장기 및 중간 목표 수립과 공시	2050년까지의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달성을 위해 장기 및 중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2. 배출량 기준선 설정과 보고	대출, 투자, 자본시장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를 매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함
3. 과학 기반 감축 시나리오 활용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및 중간 목표 설정 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를 활용해야 함
4. 목표의 정기적 검토	최신 기후과학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해야 함

[자료원] NZBA Commitment Statement, Deloitte 번역 및 요약

-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인 HSBC는 '24.1월, 은행권 최초로 넷제로 전환계획(Net-Zero Transition Plan)을 발표했다. HSBC는 '50년까지 넷제로 배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전력, 철강, 시멘트 등 주요 고배출 산업에서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년까지 석유 및 가스 부문 금융배출량을 '19년 대비 34% 감축하고, 전력 부문 금융 지원으로 인한 배출 집약도를 '19년 대비 '30년까지 76.6% 감축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HSBC Net Zero Transition Plan 2024 (2024.01).

[표 3] HSBC 산업 부문별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산업 부문	2019년 기준	2030년 목표	단위	목표 유형
석유 및 가스	33	(34% 감소)	Mt CO_2e	절대 배출량
전력 및 유틸리티	589.9	138	tCO_2/GWh	배출 집약도
시멘트	0.64	0.46	tCO_2/t 시멘트	배출 집약도
철강, 알루미늄	1.8	1.05(1.43)	tCO_2/t 금속	배출 집약도
항공	84	63	tCO_2/million rpk	배출 집약도
자동차	191.5	66	tCO_2/million vkm	배출 집약도

[자료원] HSBC Net Zero Transition Plan 2024, Deloitte 번역 및 재구성

- HSBC는 단순히 포트폴리오에서 고탄소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고객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배출 감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축소만으로는 산업계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HSBC는 고객의 사업 모델 전환이 넷제로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바이오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탄소 배출 저감을 돕고,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탈탄소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배출량 측정 방법론과 미래 과제

- 이러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배출량의 정확한 측정과 관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표준화된 측정 기준의 부재,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기후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산업계의 합의 미흡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금융배출량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PACTA(파리협정 자본전환평가), PCAF(탄소회계금융연합체)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PCAF는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금융 부문의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PCAF는 자산군별로 특화된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제공하며, 현재 7개 자산군에 대한 산정 지침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배출량 측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 PCAF 자산군별 금융배출량 측정 방식

자산군	측정 방식
상장 주식 및 회사채 (Listed Equity and Corporate Bonds)	금융기관이 상장기업에 투자하거나 회사채를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총 자산가치(자기자본+부채) 중 금융기관의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출량 할당
기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 (Business Loans and Unlisted Equity)	금융기관이 비상장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한 경우, 해당 **기업의 총 자산가치(자기자본+부채) 중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출량 할당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Real Estate)	금융기관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건물 가치 중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출량 할당
주택 담보 대출 (Mortgages)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총가치(주택 가치) 중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출량 할당
자동차 대출 (Motor Vehicle Loans)	금융기관이 자동차 구매 대출을 제공한 경우, 해당 **차량의 총가치(차량 가치) 중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출량 할당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 Finance)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총가치 중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출량 할당
국채 (Sovereign Bonds)	금융기관이 국채를 보유한 경우, **국가의 GDP 중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출량 할당

[자료원] PCAF The Global GHG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 Deloitte 번역 및 요약

- 다만 PCAF 방법론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투자·대출 대상 기업들의 신뢰성 있는 배출량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측정 역량이 부족하거나 데이터의 품질이 낮아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녹색채권, 전환 채권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산정방법론이 미비하며, PCAF 방법론이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기업의 탄소 감축 계획이나 전환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EU 금융권 중심으로 PCAF와 PACTA 방법론을 함께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BNP Paribas는 PCAF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PACTA의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분석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탄소 저감 계획과 전환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방법론 간 상호보완적 활용 및 통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표 5] BNP Paribas의 PACF, PACTA 방법론 활용 방식

방법론	활용 방식
PCAF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품질 평가에 활용
PACTA	수집된 배출량 데이터를 시나리오 분석 도구에 입력하여, 포트폴리오가 파리협정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에 활용

[자료원] BNP Paribas 2023 Climate Report, Deloitte 분석

금융배출량 관리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금융배출량 측정 및 관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24.3월 CDP 보고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응답 기관(12개) 중 9개 기관이 금융배출량을 산정했으며, 이 중 검증을 받은 기관은 6개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CDP 응답 기관(405개) 중 257개(63%)만이 금융배출량을 보고했고, 검증까지 진행한 기관은 84개로 국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출처: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3 (2024.03).

[그림 1]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배출량 산정·검증 현황(2023년 CDP 응답 기업 기준)

[자료원]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3, Deloitte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관리 및 관련 공시 요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S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역시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 내 기업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거래 기업의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한 탄소 관리 수준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대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감축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탄소 감축 요구가 대기업을 통해 협력사로까지 전달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기업의 금융 조달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HSBC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들이 거래 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이 탈탄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배출 측정·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감축 계획 실행을 위한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결국 금융배출량 관리는 금융기관만의 과제가 아닌, 기업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작성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중심주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관세 조치와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무력화 시도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우리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트럼프 후보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한국기업 투자가 기여하는 부분을 설득하며 냉철하게 실익을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주요 분야별 공약 및 전망

(미중관계)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박탈, 60% 관세 부과 등 전면적 디커플링 가능성

- 트럼프 후보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인터뷰에서는 100%까지 언급하는 등 이보다 높은 관세 부과를 시사
- 고율 관세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 시('01년) 시장 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국내법상 MFN 지위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혜택 철회를 공약
- 중국의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 차단을 위해 멕시코 생산 자동차에 대해 2,000% 관세 부과 및 '26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과정을 이용할 것임을 시사
- 첨단기술 수출통제, 투자제한, 강제노동 규제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대된 대중국 정책도 지속 또는 강화될 전망

(경제정책)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를 필두로 한 트럼프노믹스 2.0 개막

-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21%→15%)하는 등 감세 정책을 펼칠 계획이나,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
  - 트럼프 후보는 1기 집권 당시에도 법인세율을 15%로 낮출 것을 주장했으나 세수 감소 우려 및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인해 21%의 법인세율에 그치게 되었으며, 이번에도 최종적인 입법은 연방 의회의 합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

(통상정책) 무역적자 축소 및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동맹국을 불문하고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관세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

-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의 확대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 트럼프 1기와 같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조사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질 전망
- 양자간 무역합의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자 할 것이며, IPEF 이행 및 무역 필러 협상, WTO 개혁 논의는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 한국은 멕시코,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 중 하나이므로 향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

(산업정책)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의 산업정책을 전개하면서도, IRA·반도체법 등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축소시키려 할 것

- 보편관세 등 무역장벽 강화 수단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국내 제조업 공급망 강화 촉구
  -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낮은 법인세율·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 (자동차·배터리) USMCA 재협상·고율 관세 부과를 활용한 자동차산업 부흥을 예고한 가운데, 전기차 의무화 정책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
  - IRA로 인한 해외투자 유치·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IRA 수혜주 공화당 의원 및 일부 親트럼프 기업의 존속 주장으로 전면 백지화는 어려울 전망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활용해 이행입법을 수정하거나, 중요 조항의 선택적 폐지를 통해 제한적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반도체) 반도체법의 해외기업 보조금 지급 규정에 부정적인 트럼프의 입장에 따라 해외기업 대상 보조금 규모의 일부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출통제 등 대중 제재는 지속 강화 예상

(기후정책)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화석연료 채굴을 강력히 지지

- '24년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
-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 미국의 천연가스・석유 생산 확대는 한국 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전기차 관련 산업은 정부 지원 축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투자규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입장 고수

(첨단기술) AI, 암호화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자인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 후보는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는 의사 강조
- (빅테크 규제) 후보의 공약집인 Agenda 47은 '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추가 폭력 선동의 위험"을 이유로 자신을 금지한 빅테크 기업, 특히 X의 전신인 트위터의 "불법 검열"에 많은 초점
- (암호화폐) 트럼프 후보는 이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지했으나, 최근 입장을 완화하여 보다 가벼운 접근법을 옹호

2. 전망 및 시사점

- 트럼프 후보가 대중국 견제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관세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맞대응조치, 제3국의 유사 조치 도입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혼탁해질 우려
- 미국 중심 공급망 확충 및 온쇼어링, 'Make in America,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첨단산업 보조금 및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산업 육성 보조금 축소 등 미국 중심주의 강화로 기업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
- 관세 인상의 명암(明暗), 법인세 인하 등 현실적 득실을 면밀히 따져보고, 한국과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 적극 설득해 실사구시적 국익 실현 전략 모색할 필요

출처: 「2024년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24.11.06)

공급망 소식통

2024 MDB 프로젝트 플라자 (신청 11/21까지)

작성 KOTRA 해외프로젝트실

KOTRA는 MDB 프로젝트 진출 역량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4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24 MDB Project Plaza)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관련 문의
- 일반 문의 (MDB 2024 운영사무국)
070-7762-6212 / einscreative@naver.com
- 기타 프로그램, 상담 문의 (KOTRA 인프라·에너지 산업팀)
02-3460-7487,7493,7498 / inbaest@kotra.or.kr, hykang@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4.11.12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8말	11/8	11/11	11/12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6.00	1,386.40	1,394.70	1,403.50	0.63	8.97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3.30	1,385.40	1,393.70	1,393.50	△0.01	8.29
₩/CNY	181.44	181.37	187.56	194.32	194.22	194.65	0.22	7.32
₩/￥100	945.56	912.25	921.19	907.03	908.78	913.44	0.51	0.13
￥/U$	133.73	141.19	145.03	152.85	153.47	153.65	0.12	8.82
U$/EUR€	1.0617	1.1105	1.1077	1.0777	1.0715	1.0636	△0.74	△4.22
CNY/U$	6.9630	7.1092	7.0934	7.1509	7.1868	7.2328	0.64	1.74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55.4원, (₩/￥100) 896.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11/4	11/5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3.08	71.06	△2.0	0.8	△6.0
						△2.8%	1.1%	△7.8%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1.15	101.15	-	3.8	△39.4
						-	3.9%	△28.0%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251.00	9,005.00	△246.0	1192.5	529.0
						△2.7%	15.3%	6.2%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55.00	2,530.00	△25.0	461.5	194.5
						△1.0%	22.3%	8.3%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5,910.00	15,780.00	△130.0	△105.0	△520.0
						△0.8%	△0.7%	△3.2%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9말	'24.10말	11/7	11/8	11/11	11월(~1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96	1.91	1.84	1.84	1.84	1.85
(%, YoY)	29.9%	△23.0%	△14.8%	33.0%	23.4%	13.0%	12.8%	12.2%	11.3%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71	6.75	6.73	6.73	6.68	6.72
(%,YoY)	14.7%	10.7%	△2.3%	6.1%	5.4%	4.7%	4.7%	3.9%	4.7%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30('22년)	12/29('23년)	10/25	11/1	11/8	전주비(11/1)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185.33	2303.44	2331.58	1.2%	32.5%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3('22년)	12/22('23년)	1/1	11/7	11/8	11/11	11/12	전주비(11/11)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451	1495	1558	1634	4.9%	△22.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KO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K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KAR 한국로봇산업협회

KoreaBio 한국바이오협회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KONMA 한국비철금속협회

KPIA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KOIMA 한국수입협회

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EA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BIA 한국배터리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KSCIA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KAIA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Kosti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KNOC 한국석유공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T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